

에다 신사: 발계(祓禊)의 신화

일본의 창조 신화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는 남매신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일본 열도에 수많은 섬들과 그곳에서 머무는 다양한 신들이 탄생했다고 전합니다.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에 슬픔을 견딜 수 없었던 이자나기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이자나미를 되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찾아가자, ‘죽은 자의 세계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버렸으니 산 자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 있는 신들의 공격에서 도망친 이자나기는 거대한 바위로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통로를 봉인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옮겨온 부정을 씻어내고자 필사적이었던 이자나기는 옷을 벗고 물에 몸을 담그며 부정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신도의 3 대 신이라고 불리는 태양신의 아마테라스, 달의 신이자 밤의 주인인 쓰쿠요미, 그리고 바다와 폭풍의 신인 스사노오 등 다양한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에는 이자나기가 발계 의식을 수행한 장소를 휴가(지금의 미야자키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세기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에서 최초로 창조 신화가 편찬된 시기에 도읍에서 먼 남동쪽에 면하고 있던 휴가는 떠오르는 태양, 나아가 신들의 영역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여겨졌다는 이유에서 휴가가 선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기는 상록수가 우거지고 평야가 펼쳐지는 강어귀에서 발계 의식을 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현실 세계에 있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훗날 휴가의 여러 장소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를 모시는 에다 신사 주변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